

after all의 화용적 특징과 번역*

송 언 석

(한국외국어대)

1. 서론

본고는 영어와 한국어 간 번역에서 여러 학습자들이 까다롭게 여기는 after all의 화용적 의미와 기능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번역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번역교육과 실무에의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fter all은 화용론적 관점에서 담화표지(discourse markers)로 분류되는데, 한국의 대다수 학습자가 중등교육과정에서 화용론적 관점이 반영되지 않은 통사구조 중심의 정형화된 영문법 학습서로 공부하고 사전을 통해 영어와 한국어간 일대일 대응방식으로 어휘를 익히다 보니, 담화상황과 맥락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는 담화표지의 정확한 의미와 기능을 이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등가의 도착어로 표현해내야 하는 번역에서는 그 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well을 무조건 ‘글썸’로 번역한다거나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원으로 이루어졌음.

after all을 도착어 관습이나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사전에 제시된 ‘결국’이나 ‘어쨌든’으로 쓰려는 경향이 대표적인 예다. 조재범(2008)도 통번역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학생들 대부분이 after all을 단순히 ‘결국’과 ‘어쨌든’의 대응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번역에서 사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번역이 단순히 출발텍스트의 사전적 의미를 전달하는 작업이 아니라 화자의 의도, 청자의 배경지식, 화자와 청자 간 힘의 관계, 텍스트가 생산 및 소비되는 상황 및 맥락 등 다양한 제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다단한 작업임을 고려한다면 학습자들에게 after all처럼 통사구조의 틀에서 설명하기 힘든 담화표지의 화용적 의미와 기능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번역학적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연구는 학술국어 코퍼스를 이용해 after all의 용례를 설명하고 이것이 학생들의 번역결과물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 조재범(2008)과 영화자막분석을 통해 담화표지 now의 기능별 번역 양상을 연구한 유한내(2014) 외에는 찾기가 힘들다. 조재범은 처음으로 after all 영한번역 양상에 주목하고 코퍼스 용례 분석의 교육적 적용을 시도한 의미 있는 연구지만 학생들은 사전적 의미를 표현 층위에서 확장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그 문제의 원인이 절차적 의미(procedural meaning)¹⁾와 화용적 기능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화자가 인식하는 청자와의 힘의 관계 및 체면욕구(face wants)라는 대인적 측면을 중심으로 after all의 특징을 연역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주어진 상황맥락에서 after all을 사용하는 의도와 효과를 규명해 적합한 번역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량적 분석 대신 맥락을 고려하는 정성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일상구어(시트콤, 영화), 학술구어(MICASE), 일상문어(신문사설, 잡지)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기존 연구에서 간과된 after all의 의미와 기능을 조명하고 교육적 함의를 논의한다.

1) 개념적 의미(conceptual meaning)의 상대어로, 명제의 진리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청자가 명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because, before가 개념적 의미를 표현한다면 you see, after all은 절차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에 해당된다(Blakemore 1987).

2. after all의 이론적 고찰

2.1. after all의 사전적 의미와 기능

롱맨현대영영사전(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은 after all에 대해 (1) “사실이라고 생각 혹은 예상했던 바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what you thought was true or expected to happen)”란 의미로, 혹은 (2) “직전에 한 말에 대해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뭔가를 상기시킬 때 (used to say that something should be remembered or considered, because it helps to explain what you have just said)”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한다.

(1) Union leaders announced that they would, after all, take part in the national conference.

노조지도부는 결국 전국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다.

(2) I don't know why you're so concerned - it isn't your problem after all.

네가 왜 그리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네 문제도 아니잖아.²⁾

after all은 통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접속사와 유사하되 위치가 더 자유롭다는 특징을 갖는데, 베이커(Baker 2012)는 접속사가 텍스트에 결속성(cohesion)을 부여하는 장치라며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after all을 ‘계속사’로 분류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와 그 등가어를 찾아야 하는 번역 학습자들에게 이 같은 기능적 분류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가적(additive): and, or, in addition, besides, for instance ...

반의적(adversative): but, however, instead, nevertheless...

인과적(causal): so, because, consequently...

시간적(temporal): then, after that, finally, at last...

계속사(continuatives): now, of course, anyway, after all...

2) 예문은 필자번역.

학습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네이버 영어사전(동아출판사 영어사전 기반)은 after all을 “(1) (예상과는 달리) 결국에는 (2) 어쨌든 (설명, 이유를 덧붙일 때)”으로 풀이하고 있어 의미 자체는 영영사전과 별 차이가 없으나, 다음과 같이 두 표현을 사용한 번역문만 제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이 ‘결국’과 ‘어쨌든’이란 표현에 집착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So you made it after all.

그래 네가 결국에는 (그것을) 해냈구나!

He should have paid. He suggested it, after all.

그가 돈을 냈어야지. 어쨌든 그가 제안을 한 거니까.

정리해보면 after all의 사전적 의미와 용법은 크게 (1) 예상과는 다른 결과 (2) 이유 제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용법은 현대 미국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 제시’의 after all이다(Traugott 2006: 555).

2.2. 담화표지로서의 after all

2.2.1. 담화표지의 특징과 기능

담화표지는 슈프린(Schiffirin 1987)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개념으로, well, so, now, I mean, you know 같은 불변화사(particles), 감탄사, 부사 등을 가리킨다(서경희 2008: 139). ‘P 담화표지 Q’로 표현되는 명제식에서 명제 P, Q의 의미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P와 Q간 논리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문장 내 위치가 자유로운 편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대체로 구어에 주로 사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Müller 2005: 28).

담화표지는 텍스트적(textual) 기능과 대인적(interpersonal) 기능 두 가지로 구분되어 논의되는데(Brinton 1996), 이 같은 이분법은 일찍이 언어란 명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동시에 정서적 의미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리노프스키(Malinowski 1923)나 오르가논(organon) 모델을 통해 언어의 기본기능을 설명

한 빌러(Bühler 1934)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빌러에 따르면 언어는 세 가지 기능, 즉 사물이나 개념 등의 객체를 표상(representation)하는 기능,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expression)하는 기능, 청자에게 호소(appeal)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Redeker 1990: 369; House 1997: 33), 이 역시 결국 텍스트적 기능과 대인적 기능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즉 after all 같은 담화표지를 번역할 때는 문장들을 연결해 결속성(cohesion)과 논리성(coherence)을 높이는 텍스트적 기능뿐 아니라 대인적 측면에서 담화표지를 사용하는 이유와 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비로소 화자/저자의 의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after all의 번역을 까다롭게 여기는 이유 또한 문장에 논리를 넣어 연결하는 텍스트적 기능에만 초점을 맞춘 사전적 의미 재현을 답습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2.2. after all의 텍스트적 대인적 기능

담화표지 after all의 기본적인 텍스트적 기능은 P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프레이저(Fraser 1999: 949)는 after all을 because, since처럼 ‘이유’를 나타내는 담화표지로 분류했고 카스톤(Carston 1993: 39-40)은 이를 다음처럼 ‘결론 - 근거’의 관계로 설명한다.

He'll pass the French exam; after all, he is a native speaker.
그는 불어시험에 합격할 것이다(결론P). + 그는 원어민이다(근거Q).

여기서 after all은 P에 대한 논거 Q를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해보면 ‘결국’이나 ‘어쨌든’ 같은 부사보다는 ‘-니까’ ‘- 때문이다’처럼 이유를 뜻하는 어미나 서술어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He'll pass the French exam; after all, he is a native speaker.
가. 개는 불어시험에 합격할 거야. 어쨌든 원어민이야. (X)
나. 개는 불어시험에 합격할 거야. 어쨌든 원어민이니까.
다. 개는 불어시험에 합격할 거야. 원어민이기 때문이지.
다. 개는 불어시험에 합격할 거야. 원어민이니까.

라. 개는 불어시험에 합격할 거야. 원어민이잖아.

그런데 이유나 근거 제시는 because나 since에도 있는 기능이므로 논리관계라는 텍스트적 기능만으로는 굳이 after all을 쓰는 의도, 즉 대인적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엘하대드와 매큐언(Elhadad & McKeown 1990)은 듀크로(Ducrot 1983)의 다성성(polyphony) 이론을 토대로 because와 since의 차이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발화내용 중에는 화자(speaker)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화자가 다른 발화자(utterer)의 생각이나 믿음을 전달하는 부분도 있는데, P와 Q 각각의 생각/믿음의 출처가 같으면 단성적(monophonic), 다르면 다성적(polyphonic)으로 구분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since는 다성적, because는 단성적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발화자가 청자인 경우, 즉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일 때는 다성적인 since가, 그렇지 않을 때는 because가 어울리는 접속사가 될 것이다.

since와 because의 차이는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의 관점으로도 설명된다. 청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는 구정보(given/old)가 먼저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로(원종화 2008; Ward & Birner 2006; vande Kopple 1986), 무표적인 절에서 신정보(new)는 뒤쪽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는데(Halliday 1985), since는 청자도 알고 있는 구정보를 소개할 때, because는 신정보를 소개할 때 사용된다. since가 대체로 앞쪽에, because는 뒤쪽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Quirk et al. 1972)이 그 방증이다.

엘하대드와 매큐언은 다음 예문을 통해 since가 구정보를 이끄는 다성적 접속사임을 주장한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Since you are so tired, you must sleep.

여기서 화자는 ‘you are tired’라는 정보의 출처를 청자(아이)로 전제하고 있다. 즉 아이가 이전에 이런 취지로 발화했다는 사실을 ‘you must sleep’에 대한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1990: 99). 만약 청자가 발화자가 아니라면, 즉 청자도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아이에게 자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after all 또한 구정보를 이끄는 다성적 연결사에 해당된다. P after all Q에서 Q에는 이미 알려져 있는(known) 상황이나 사회적 규범 등 청자가 회수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고(Traugott 2006: 555), 화자는 청자도 알고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청자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Blakemore 1987: 81-82; Blass 1990: 129). 이렇게 보면 일단 after all은 다성적 측면에서 because보다는 since와 유사성이 더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since와 등가 치환되는 것은 아니다. since가 구정보를 이끌며 앞에 위치하는 무표성을 갖는데 반해 after all은 구정보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뒤에 배치됨으로써 유표성을 갖기 때문이다. 화자가 굳이 유표적 구조를 선택할 때는 그 이유나 의도가 있게 마련인 만큼 이 경우 대인적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영 번역에서도 화자가 자신만이 아닌 타인(청자)의 생각을 담화에 반영하려는 대인적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니까’가 ‘이유’를 의미한다고 해서 무조건 because로 치환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 간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after all, since, because 비교

after all	since	because
구정보인 이유 근거	구정보인 이유 근거	신정보인 이유 근거
유표적 정보구조 (신정보-after all-구정보)	무표적 정보구조 (since-구정보-신정보)	무표적 정보구조 (구정보-because-신정보)
다성적	다성적	단성적

그런데 수많은 담화표지 연구 중 특별히 after all의 대인적 기능에 주목한 연구는 트로고트(Traugott 2006) 외에는 찾기 힘들다. 트로고트는 after all이 P 나 그 이전 담화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이때 화자의 태도는 부정(negation), 인식양태(epistemic modality), 평가적 어휘(evaluative lexeme) 등으로 표현된다고 주장한다. 다음 예에서 after all은 P에 나오는 평가어 absurd와 양태표현 can be expected로 표현된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청자도 알고 있는 정보 Q를 통해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The notion that bombs can strike military targets without killing and maiming innocent women and children is absurd. If there is war, the Iraqi dictator can be expected to employ chemical weaponry. After all, he killed his own people, including Kurdish women and children, with poison gas.(p.555).

트로고트(2006: 556)는 이 경우 after all은 화자의 우월감을 표현하는 화용적 목적도 있다고 주장한다. 청자가 Q를 알고 있으면서도 P라는 결론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화자인 자신은 해냈다는 우쭐함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after all은 ‘이유’나 ‘근거’를 제시한다는 텍스트적 의미와 기능에서는 because, since와 비슷하지만, 청자가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정보를 ‘상기’시킴으로써 화자의 주관성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보호한다는 대인적 의미와 기능에서 because, since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번역에서도 화자의 그런 의도를 파악해 반영할 수 있는 등가어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 after all 번역의 실제

지금까지 after all의 기능을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해보았다. 이 장에서는 용례 분석을 통해 after all의 화용적 의미와 기능을 확인하고 번역전략을 모색하기로 한다.

3.1.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본 after all의 화용적 기능

앞서 살펴봤듯이 P after all Q에서 after all은 독자도 알고 있을(given) 정보 Q를 이끈다. 일반적인 정보배치 순서가 구정보(given)-신정보(new)임에도 이에 어긋난 정보구조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기존 담화표지 연구는 ‘이유나 근거 제시’라는 텍스트적 기능 외에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언어적 선택에는 동기나 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P after all Q의 구조에서 화자는 신정보인 P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유표성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효

과를 얻는다. 정보란 새로울 때 가치가 있으며 이미 알려진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since Q, P의 구조일 경우 독자는 구정보→신정보의 자연스런 흐름에 따라 제시된 정보를 받아들여지게 되며 구정보 Q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약화되지만, P after all Q처럼 신정보가 먼저 제시될 경우, 청자가 새로이 접하게 되는 정보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할 소지가 생기며 이 긴장은 Q에까지 이어져 결과적으로 결론인 P와 근거인 Q 모두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에 비해 한국어 ‘어쨌든’은 ‘의견이나 일의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떻게 되어 있든(국립국어원)’이란 뜻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결론인 P가 ‘중요하지 않다’며 일축하는 어감을 주는 만큼 번역 시 적합한 선택이라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정보구조 선택의 의도를 고려할 때 ‘결국’이나 ‘어쨌든’ 보다는 P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근거 제시’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after all의 화용적 의미와 효과를 살리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He'll pass the French exam; after all, he is a native speaker.

개는 불어 시험에 합격할 거야. 원어민이잖아.

He'll pass the French exam because he is a native speaker.

개는 원어민이라 불어 시험에 합격할 거야.

Since he is a native speaker, he'll pass the French exam.

개는 원어민이니까 불어 시험에 합격할 거야.

3.2. 힘의 관계와 after all의 화용적 기능

정보구조와 관련해 고려해볼 또 한 가지 요인은 힘의 관계다. 다음 예문은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에볼라에 관해 쓴 기사 중 일부다.

The fear of becoming infected with Ebola on a plane has a primal element—after all, it combines two of our most potent fears: flying and communicable disease. (2014.10.20. economist.com)

다성성 이론에 따르면 이 예에서 after all은 since처럼 다른 발화자를 출처로 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상대방에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화용

적 기능에서 since와 차이가 있다(Blakemore 1987; Traugott 2006). 화자인 경제전문지 기자가 일반 독자에 비해 우월한 정보력과 사회적 위치를 점한 가운데, Q에 대해 모르지는 않더라도 미처 P와의 관련성을 떠올리지 못했을 일반인 독자들을 일깨우는 구도다. 트로고트(2006)가 주장한 ‘우월감’도 이 같은 힘의 관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영번역에서, 독자가 전혀 모르는 정보는 아니지만 화자가 힘의 우위에 있는 입장에서 이를 상기시킬 때는 ‘~ 때문이다’처럼 이유를 나타내는 한국어 표현에 after all을 쓰는 것이 화용적 의미를 살리는 데 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장르 중 하나는 여론을 주도하는 목적을 가진 신문사설이다.

이 기회에 국가적 위기관리의 개념을 재점검하고 대통령이 지휘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는 더 나은 국정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5.6.21. 경향신문)

The government should take this opportunity to review the concep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establish a principle that puts the president in command. After all if the government seeks to distinguish itself from past governments, it should be for the better. (2015.6.22.)

이 예문에서 다성적 after all 대신 단성적 because를 쓸 경우, 문장이 너무 길어질 뿐 아니라, 독자에겐 구정보인 Q가 신정보에 쓰여야 할 because와 결합되는 모순으로 인해 인지적 부담이 커지고, 단성성으로 인해 독자를 담화에 참여시키려는 화자의 대인적 의도가 잘 반영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설득적 텍스트인 사설로서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2015년 3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5개월간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사설(ST)과 번역문(TT) 78쌍 중 P after all Q가 사용된 경우는 10건이었는데, 원문이 ‘~ 때문이다’, ‘~이어서다’로 ‘이유나 근거 제시’인 경우가 8건이었다. 다음 예문처럼 원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논리관계상 근거제시인 경우가 1건, ‘~에도 불구하고’가 각 1건이었는데, ST에 사용된 표현 층위가 아닌 의미 층위의 논리관계와 화용적 의도를 반영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가 언제까지 삼성전자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2015.7.8. 경향신문)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seek new growth engines. After all, the South Korean economy cannot just look to Samsung Electronics forever.(2015.7.8.)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 5대 군사강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무기를 북한이 과연 독자 개발할 수 있는지 의문인데도 그런 주장을 했다. (2015.4.8. 경향신문)

He made such claims despite doubts that North Korea could actually develop such weapons on its own. After all, this state-of-the-art weapon is only possessed by the top five military powers in the world--the U.S. the U.K., China, France, and Russia. (2015.4.10.)

그렇다면 사회적 지위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화자가 확고히 열위에 있거나 그렇다고 인식할 때는 어떨까? 이 경우 상대도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을 굳이 after all을 사용해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모험을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먼저 학술구어 코퍼스인 MICASE(Michigan Corpus of Academic Spoken English)에서 조건검색을 통해 after all 사용 양상을 분석해봤다. 약 185만 단어의 학술 구어텍스트로 이뤄진 이 코퍼스에서 P after all Q는 총 31건이 사용됐는데 힘의 관계를 고려해 17-23세의 원어민 대학생이 화자인 경우와 51세 이상 원어민 교수가 화자인 경우를 대조해봤다. 분석 결과 어린 대학생이 화자이고 시니어 교수가 청자인 경우 after all은 단 한 건도 사용되지 않은 반면, 51세 이상인 교수가 화자일 때는 17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권이므로 ‘나이’라는 요인을 배제한다 해도 학식과 경륜이 중요한 기준이 될 대학 내 힘의 관계에서 열위에 있는 학생이 우위에 있는 교수에게 after all을 사용하며 ‘상기’시키는 상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군대처럼 힘의 관계가 더 확실한 경우, 열위에 있는 화자는 상급자에게 설 불리 after all Q를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상급자는 계급상 우위임이 명백한데다 체면욕구가 무시되는 상명하복 체계이므로 애초에 after all Q로 상기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세계최대영화데이터베이스인

IMDB에서 전쟁 군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인기도 상위 20위³⁾까지의 대본을 조사해본 결과, *after all*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은 반면 로맨스 드라마에서는 4건이 발견됐다. 다만 표본이 적고 모든 장르를 비교한 것이 아니라 일반화할 수 없지만 이를 분석해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3.3. 체면욕구와 *after all*의 화용적 기능

공손성(Politeness) 이론의 관점에서는 *after all*을 체면욕구(face wants)를 충족시키려는 의도와 결부해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유지 및 강화하고 싶은 체면욕구가 있는 만큼(Brown & Levinson 1987) *after all*을 통해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재확인하고 체면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을 할 때도 단순히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만 쓰기 보다는 청자/독자가 화자만큼 깊이 생각해보지는 못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따지고 보면,’ ‘잘 생각해보면’처럼 다양한 표현들을 조합해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번역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fear of becoming infected with Ebola on a plane has a primal element—*after all*, it combines two of our most potent fears: flying and communicable disease. (2014.10.20. economist.com)

에볼라 기내 감염에 대한 공포에는 원초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잘 생각해 보면/따지고 보면/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 중 두 가지, 즉 비행과 전염병을 합쳐놓은 것이[기 때문이다/지 않은가/이니 말이다].

화자가 일방적인 정보전달자 입장이 되기 쉬운 문어텍스트와 달리, 친구들 간 대화 같은 구어담화에서는 사회적 지위는 대등하다 해도 상황맥락에 따라 미묘한 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fter all*을 쓴 목적도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령 화자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는 결론 P를 먼저 제시할 경우 청자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하는 리스크, 즉 체

3) http://www.imdb.com/chart/?ref=ft_chn의 Top Movies by Genre에서 War와 Romance를 선택해 1위(The Hunger Games(전쟁), We Are Your Friends(로맨스)부터 20위(The Deer Hunter(전쟁), Grease(로맨스)까지 각각 대본을 구해 확인했다.

면위협(face threats) 가능성에 노출되므로 곧바로 after all Q를 상기시켜 체면위협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화자가 일시적으로나마 우위에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소극적인 체면위협차단보다는 적극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쉬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는 전형적인 구어텍스트인 시트콤 ‘프렌즈(Friends)’ 대본과 번역본을 분석해봤다. 시트콤은 다양한 상황과 등장인물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체면위협행위와 체면욕구유지행위가 웃음을 유발하는 장르이고 특히 ‘프렌즈’의 경우 사회적으로 힘의 관계가 대등한 친구들 간에 벌어지는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240회 분량의 대본에서 after all은 12회 등장하지만 after all these years처럼 부사구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를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P after all Q로 사용된 경우는 다음 3건이었는데, 순수 구어대화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1), (2)다.

(1) Ross: Oh-oh-oh, hey guys, I was wondering if you guys would uh, maybe chip in on some new air filters for the air purifier? I mean, after all, we all are using it.

아 잠깐, 얘들아. 너희 공기정화기를 위한 새 필터에 돈을 낼 생각 없니? 내 말은, 공기정화기는 우리 모두 같이 쓰고 있잖아.

(2) Dr. Rosin: Monica, how's the ankle?

Monica: It's uh, well, uh, why don't you tell them? After all, it is your ankle.

어떤지 말해봐. 네 발목이 잖아.

(3) (동영상)...a sound Mom and Dad never forget. For this, after all, is the miracle of birth.

잊혀지지 않는 소리죠.

이것이 바로 탄생의 신비입니다.

(1)은 집세가 부족해 잠시 친구들 집에 얹혀 지내지만 눈치 없는 행동으로 빈축을 사던 화자 로스가 다른 집을 보러 가자는 친구들 압박에 응한 뒤 자신이 공기정화필터에 썼던 돈을 회수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화자

는 제안 P를 거부당할 수도 있는 체면위협 상황을 Q를 상기시켜 차단하고 있다. (2)는 발목을 다친 레이첼이 화자인 모니카의 건강보험 혜택을 얻기 위해 모니카 행세를 하던 중 이를 모르는 의사가 모니카가 있는 자리에서 레이첼에게 모니카라고 부르며 발목 상태를 묻는 장면이다. 이 상황이 못마땅한 모니카는 Q를 상기시키며 레이첼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비해 (3)은 극중 산부인과에서 흘러나오는 임산부 교육용 동영상 멘트로, 또래 간 체면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긴장상황이 아니라 화자가 권위를 갖고 일방적으로 Q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1)(2)와는 차이가 있다. 힘의 관계상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문어텍스트에 가까우며 번역 역시 (1), (2)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종합해 보면, after all은 신문사설처럼 힘의 관계와 상호작용이 일방적인 문어텍스트에서는 대체로 우위에 있게 되는 화자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제로, 대등적이고 양방향적인 구어담화에서는 상황맥락에 따라 체면위협을 차단하거나 화자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제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3. after all의 교육적 함의

이번에는 after all의 화용적 기능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교육적 적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통번역대학원 번역수업에서 사용한 텍스트 중 일부를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 예는 1960년대 전염병 퇴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데도 승리를 선언했던 미 공중보건국장의 주장 P에 대해 화자가 독자도 알 만한 근거 Q를 상기시킴으로써 일단은 P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기사로, 화자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In 1967, Surgeon General William H. Stewart was reported to have said: "It's time to close the book on infectious diseases, and declare the war against pestilence won." After all, we had antibiotics to treat the killer scourges of the past centuries and vaccines to prevent many others. (2014.10.31. slate.com)

통대 학생들은 사전에서 대응어를 찾으려 하는 단계는 넘어선 수준이지만

13명의 번역을 살펴보면 after all의 화용적 효과는 차치하고, 논리관계를 제대로 살린 경우도 많지 않았다. 23%인 3명만이 ‘근거’를 제시하는 의미로 번역했고 나머지는 after all을 다른 의미로 번역하거나 아예 생략함으로써 앞문장과의 논리적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저자가 의도한 화용적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은 물론, 가독성도 약화됐다(표2).

〈표 2〉 학습자의 after all 번역 사례

‘근거’의 의미로 풀어서 번역 (3명 =23%)	“지난 몇 세기 동안..백신도 있었으니 그리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엔 일리 있게 들릴 법도 했다. 항생제 개발로..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지난 수백년간.. 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
P를 강조하는 의미로 번역 (4명)	“실로 인류는 지난 수세기 동안.. 치료할 수 있었다.” “실로 인류는 지난 몇 세기 동안.. 백신도 개발했다.” “실제로 우리는 ... 백신을 개발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들어서는... 백신이 개발되었다.”
생략으로 P와의 논리관계 소실, 가독성 훼손 (6명)	“우리에게 지난 수세기 동안.. 백신도 있었다.” “과거 무수한 사망자를 낸 질병들을 치료할.. 백신을 이미 갖춘 때였음을 고려할 때 일리 있는 선언인 듯했다.” “인류는 끝끝내 과거 수세기 동안 .. 백신 또한 개발해냈다.” “과거 수세기 동안 창궐했던... 백신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개발해냈다.” “되돌아보면 수세기 전에도 ..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인류에게는 .. 백신이 있었다.”

앞서 살펴봤듯이 P after all Q에서 after all이 갖는 대인적 기능의 요체는 P의 이유나 근거로서 독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상기시킴으로써 독자를 담화에 끌어들이는 동시에 화자의 체면욕구를 충족시키고 P의 정당성/타당성을 설득하려는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after all의 등가어를 ‘결국’이나 ‘어쨌든’, ‘실제로/실로’ 같은 부사보다는 공유정보를 상기시키고 나아가 화자의 체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어 등가 표현에 더 큰 비중을 두도록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따지고 보면’처럼 잊고 있었거나 간과한 것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표현에 이유를 뜻하는 어미 ‘-(으)니

까'를 결합한다든지, '이유+상기'를 뜻하는 '-잖아(요)-'를 활용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으)니까'는 화자와 청자가 시점과 정보를 공유하고(정인아 2012: 474), '-잖아(요)-'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내용에 대해 청자가 당연히 알고 있음을 확인할 때 사용되므로 '정보를 공유한 상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손세모들 1999; 원혜영 2011; 이현희 2003), 특히 '-잖아(요)-'의 경우 해당 명제를 의문문이 아닌 확정적 진술로 표현함으로써 청자가 다른 대답을 할 기회를 차단해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점(원혜영 2011: 311)에서 구어담화의 체면위협 상황에서 헛지 효과를 내기에 적합하다. 구어텍스트에서는 '-잖아(요)-'로 표현되지만 문어텍스트라면 '-지 않은가' 등으로 형태를 바꾸는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After all, we had antibiotics to treat the killer scourges of the past centuries and vaccines to prevent many others.

[따지고 보면/사실/잘 생각해보면/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지난 수백년간 인류를 괴롭히던 치명적 질병을 치료할 항생제와 예방 백신이 [있었으니까/있었으니 말이다/있지 않았는가].

That's why, tonight, I ask every American who knows someone without health insurance to help them get covered by March 31st. Moms, get on your kids to sign up. Kids, call your mom and walk her through the application. It will give her some peace of mind - plus, she'll appreciate hearing from you. After all, that's the spirit that has always moved this nation forward. It's the spirit of citizenship - the recognition that through hard work and responsibility, we can pursue our individual dreams... (오바마 미 대통령 2014년 국정연설)

어쨌든 그것이야말로 늘 우리 미국을 발전시켜 온 정신입니다.(?)

결국 그것이야말로 늘 우리 미국을 발전시켜 온 정신입니다.(?)

→ 사실 그것이야말로 늘 우리 미국을 발전시켜 온 정신이니까요.

→ 잘 생각해 보면/따지고 보면 그것이야말로 늘 우리 미국을 발전시켜온 정신이지 않습니까.

물론 문맥에 따라 '이유'의 어미에 '결국/어쨌든'이 가장 자연스런 조합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밖에도 다양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요는 학습

자들이 수동적인 일대일 대응 습관에서 벗어나 화용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을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학습자들이 after all의 번역을 까다롭게 여기는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해 화용적 의미와 기능을 살펴봤다. 담화표지로서의 after all은 선행명제 P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한다는 텍스트적 기능과 더불어, 청자와의 힘의 관계 고려 및 체면욕구 충족이라는 대인적 기능과 목적을 수행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after all의 화용적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fter all은 ‘신정보 P - after all - 구정보 Q’라는 유표적 정보구조를 통해 P와 Q 끝까지 독자의 관심을 유지시키는 효과를 낸다.

둘째, after all은 화자가 청자/독자와의 힘의 관계에서 자신을 우위로 인식하는 경우, 상대가 미처 생각해내지 못했을 만한 Q를 상기시킴으로써 긍정적 자기이미지를 강화해주고, 화자가 청자/독자와의 관계에서 일시적 열위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신정보 P를 먼저 제시하는 데 따르는 체면위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화자가 사회적, 절대적 열위에 있을 때는 굳이 after all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 같은 담화표지의 화용적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학습자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만으로는 부족한 대인적 기능 중심의 화용적 정보를 교수자가 먼저 제공한 뒤, 학습자가 주어진 맥락에서 화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 원문의 형식에서 벗어나거나 원문에 없는 표현이라도 대인적 의미와 효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도착어 표현을 시도해보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번역의 실제에 해당되는 교육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로 after all을 선택해 미시적으로 고찰해봤다. 다양한 장르에 걸쳐 정성적 분석을 시도했으나 통계 검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학습자가 습관적인 사전적 의미 치환에서 벗어나 화용적 등가 달성

을 위한 유연한 번역전략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도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고 번역교육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

참고문헌

- 서경희 (2009) 「한국인 EFL 학습자의 구술 담화에 나타난 담화표지 so의 편재성」, 『영미연구』 20: 139-65.
- 손세모들 (1999) 「‘-잖’의 의미, 전제, 함축」, 『국어학』 33: 213-40.
- 원종화 (2008) 「자막번역에서의 유표적 주제구조」, 『번역학연구』 9(1): 167-91.
- 원해영 (2011) 「한국어교육을 위한 구어체 종결어미 ‘-잖아(요)’ 연구」, 『한국언어문학』 79: 301-27.
- 유한내 (2014) 「담화표지 ‘now’의 기능별 번역양상 연구: 영화자막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4): 97-117.
- 이현희 (2004) 「‘-잖’은 단지 ‘-지 않’의 음운론적 축약형인가?」, 『한국어학』 23: 203-28.
- 정인아 (2012) 「한국어의 시점에 관한 연구: ‘-아서/어서’와 ‘-(으)니까’의 시야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48(3): 463-85.
- 조재범 (2008) 「코퍼스를 통한 After All의 용례 분석 및 번역 교육에의 적용」, 『통번역교육연구』 6(1): 5-17.
- Baker, Mona (2011) *In Other Words: A Coursebook on Translation*, second edi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 Blakemore, Diane (1987) *Semantic Constraints on Relevance*, New York: Blackwell.
- Blass, Regina (1990) *Relevance Relations in Discourse: A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Sissal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inton, Laurel (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 Brown, Penelope and Stephen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ühler, Karl

- (1934)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Jena: Fischer.
- Carston, Robyn (1993) 'Conjunction, explanation and relevance', *Lingua* 90: 27-48.
- Ducrot, Oswald (1983) *Le sens commun: Le dire et le dit*,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 Elhadad, Michael and Kathleen McKeown (1990) 'Generating Connectives',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Helsinki, Finland: Coling.
- Fraser, Bruce (1988) 'Types of English discourse markers', *Acta Linguistica Hungarica* 38, 19-33.
- Fraser, Bruce (1999) 'What are discourse markers?', *Journal of pragmatics* 31, 931-51.
- Halliday, Michael Alexander Kirkwood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 Halliday, Michael Alexander Kirkwood and Ruqaiya Hasan (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House, Juliane (1997)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Model Revisited*, Tübingen: Gunter Narr.
- Malinowski, Bronislaw (1923) 'The problem of meaning in primitive languages', in Charles Ogden and Ivon Richards (eds) *The Meaning of Meaning: A Study of the Influence of Language upon Thought and of the Science of Symbolism*, London: Kegan Paul, Trench, Trubner, 296-336.
- Quirk, Randolph,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Redeker, Gisela (1990) 'Ideational and pragmatic markers of discourse structure', *Journal of Pragmatics* 14, 367-81.
- Schiffirin, Deborah (1987) *Discourse Marker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raugott, Elizabeth (2006) 'Historical Pragmatics', in Laurence Horn and Gregory Ward (eds) *The Handbook of Pragmatics*, Oxford: Blackwell

Publishing, 538-61.

vande Kopple, William (1986) 'Given and new information and some aspects of the structures, semantics, and pragmatics of written texts', in Charles Cooper and Sidney Greenbaum (eds) *Studying Writing: Linguistic Approaches*, Beverly Hills, CA: Sage, 72-111.

van Dijk, Teun (1979) 'Pragmatic connectives', *Journal of Pragmatics* 3, 447-56.

Ward, Gregory and Betty Birner (2006) *Drawing the Boundaries of Meaning: Neo-Gricean Studies in Pragmatics and Semantics in Honor of Laurence R. Horn* (Vol. 80),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기타 자료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5th edition, London: Pearson Longman.

[Abstract]

Translation of 'After All': Theory and Practice

Song, Yonsuk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agmatic aspects of 'after all,' whose meanings are often elusive to translation trainees, and to suggest ways to incorporate them into translator training. By exploring textual and interpersonal meanings and functions of 'after all,' the paper attempt to unveil the motives and intentions behind the speaker's choice of it as a discourse coherence device. Drawing upon an analysis of both written and spoken texts, the paper demonstrates that 'after all' is used not only to provide evidence and justifications of propositions but also to serve as a reminder to the addressee(s) of that evidence, thereby engaging them in the discourse while satisfying the addressor's face wants in the power dynamics between them. It also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translation and translator training.

▶ Key Words: after all, discourse marker, face, pragmatic functions

송연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조교수

yonsuk@gmail.com

관심분야: 담화분석, 미디어번역, 권력관계, 이데올로기

논문투고일: 2015년 8월 2일

심사완료일: 2015년 9월 2일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24일